

녹용을 수급조절 한약재로

1995.3.25 시행한 한약재 품질 및 유통관리 규정에 녹용을 수급조절품목으로 할 것을 건의한 전문임. ◀◀ 편집자 주

·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녹용을 인삼과 더불어 부유층 보약의 대명사로 인식되었으나 농경사회에서 첨단 산업사회로의 전환에 따른 국민소득증대 영향으로 녹용소비는 폭발적으로 증가하여 세계 인구의 100분의 1이 못되는 우리 국민이 세계 녹용생산량의 80%(20만kg)를 소비하는 현실로 미루어 국민 18명중 1명이 복용하는 것으로서 그 신뢰도는 가히 신장적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세계 최대 소비시장인 우리나라의 녹용수급 동향을 보면 뉴질랜드, 중국, 소련, 미주지역에서 생산한 매화용, 적녹용, 대녹용, 순록뿔 등 외산이 소비시장을 독점하고 있을뿐 아니라 법령과 제도에 묶인 국산은 단 1kg의 녹용도 상품화(건조판매) 못하고 자연상태의 녹용을 친척, 친지를 통해 원시적인 연고판매에 의존하는 실정입니다.

표 1. 녹용수급동향

1. 연도별 수급상황

단위 : kg

주요 연도	연간 수요량	수 입 상 황 (건녹용)			비 고
		국산생산량	외산수입량	자 급 율	
1970	2,400	-	2,400	0%	국내 양륙초기
1980	21,153	1,579	19,574	7.5%	
1990	61,576	14,982	45,594	24%	
1994	161,451	31,129	130,322	19.3%	
1995		36,296			

2 산지별 수입현황

년도	년간수입량	뉴질랜드	중 국	소 련	미주지역	기 타	비 고
1990	46,594	21,580	9,642	10,515	4,369	438	
1992	106,448	56,967	18,172	27,112	3,891	305	
1994	130,322	67,367	34,270	20,273	7,119	1,193	북한산 1,143

따라서 녹용생산자로 구성된 사단법인 한국 양록협회는 10년동안 전도된 유통구조를 시정하기 위하여 사양관리를 관장하는 농림수산부를 비롯하여 녹용 가공유통을 전담하는 보건복지부 그리고 세정을 전담하는 재정경제원 등의 유관부처에 관련 법령 및 제도의 개선과 시정정책을 건의해 왔으나 정부는 오히려 시숨을 비롯하여 녹육, 녹혈수입을 개방했을 뿐 아니라

발전한 것은 뉴질랜드 정부가 생산, 가공, 유통의 정책지원을 비롯하여 막대한 연구비(1년 27억원) 투자 그리고 정부차원의 홍보등을 수출전략 축산으로 적극 육성한 결과이므로 두나라의 양록정책이 너무나 대조적이어서 무책과 규제로 일관하는 우리 정부가 원망스럽습니다.

최근 정부당국이 재정고시한 한약재 품질 및

표2. 국내 양록현황

단위 : 두수/kg

년 도	사 육 동 향			품 종 별 사 육 규 모			비 고
	가구수	사슴수	녹용 생산량	꽃사슴	레드디어	엘 크	
1976	280	3,677	582	3,332	138	207	양록초기
1986	3,962	42,322	6,601	38,593	1,499	2,240	
1994	8,910	141,469	31,129	109,786	16,874	14,809	수입사슴 9,189두 포함
1995	9,100	166,606	36,296	126,254	21,334	19,018	사슴도축으로 증가율30%둔화

녹용수입량을 무한량 추천하는등 외산소비를 촉진하는 정책으로 일관했기 때문에 국산은 판로가 없어 녹용생산을 포기(사슴 밀도살)하거나 폐업하는 농가가 속출하고 있어 40년간 외롭게 쌓은 양록기반이 위기에 직면한 반면, 우리나라 녹용수입량의 50%를 수출하는 후발국인 뉴질랜드의 경우 불과 20년만에 4천여 사양장에서 중, 대형 사슴 120만두를 사양하며 15만kg의 녹용을 생산하는 최대 양록국으로

유통관리규정은 한약재의 수급조절 및 규격화 실시를 목적으로 했는데 동 규정 제4조 수급조절 대상한약재, 제6조 한약재 수급조절 위원회 규정, 제11조 국내 한약재의 수매, 제12조 수급조절, 제23조 규격품 대상 한약 등 수급조절과 규격화의 주요 조항은 한약재 생산자의 생업과 관련된 사항인데 한약재 수입금액의 35%를 차지하는 녹용을 생산하는 국내 양록인에는 의견 제시기회나 토론참가 통보도 없이

표3. 한국 및 뉴질랜드 양육 대비

	사 육 동 향			생 산 물		양 룝 정 책	
	사육장수	사슴수	녹용 생산량	녹 용	녹 육	사 슴	녹 용
한 국	9,100	16,606	36,296	축산물 (15% 자급)	생산없음	수입개방	외산에 의존
뉴질랜드	4,200	1,200,000	150,000	전량수출 (한국 65%)	수 출	고소득 가축 육성.	수출 전략품

소비층인 가공, 이용업계의 일방적 의견만 수렴하여 제정한 것은 공정성과 형평성이 결여됐을뿐 아니라 동 규정 제4조 별표1.의 수급조절 대상한약재에 녹용을 대상품목으로 지정하지 않은 것은 세계 녹용생산량의 80%를 소비하고, 내수량의 85%를 외산에 의존하는 녹용 수급현실을 무시했고 동 6조 조절위원회 구성원중 농림수산부장관 추천 의원(4인)이었으나 식물성 생약재 생산자대표만 추천하고 동물성 생약재(녹용)생산자대표는 배재했으며 더욱이 녹용을 규격품으로 지정, 중간 소비층인 한약업소는 규격품만 판매토록 규정했기 때문에 국산녹용의 한약재 이용을 원천적으로 봉쇄한 본 규정은 제정취지와 목적에 위배될 뿐 아니라 내·외산 균형수급을 부정한 한약재 수급조절 정책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국내

양육보호와 내·외산 녹용의 원활한 수급을 실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1. 건의사항

녹용의 한약재 수급조절품목 지정과 국내 녹용생산자 대표 수급조절위원회 참여와 관련 "녹용"을 수급조절 한약재로 추가지정(별표참조)

2. 건의사유

세계 녹용생산량의 80%를 수입하는 현실에서 국산 녹용의 한약재 이용을 원천적으로 봉쇄한 본 규정은 국내양육을 말살하고 외산으로 수요량을 충당하려는 망국적인 수급정책이라

별표1. 수급조절한약재 (제4조 관련)

지 정 요 건	지 정 품 목	지정건의 품목	지정건의 사유
-국내에서 상당량이 재배 또는 채취되거나 국내 생산량이 소요량을 초과하는 것으로서 -품질이 우수한 것.	강활, 구기자, 질경, 독활, 두충, 맥문동, 목단피, 방풍, 백수오, 백지, 백출, 산수유, 시호, 오미자, 작약(백), 적작약, 지모, 지황(생, 건), 창충, 천궁, 천마, 치자, 택사, 히수오, 향부자, 황금, 황기.(29종)	녹용(30종)	건의사유 참조

별표2. 규격품 대상 한약재 (제23조 관련)

규격품 대상 품목 (36종)	비 고
갈근, 감국(국화), 감초, 건강, 계지(유계), 계피, 곽향(배초향), 구기자, 질경(길경근), 녹각, 녹용(반용주), 당귀, 도인, 마황, 반하, 복령(적·백복령), 부자, 산수유, 산조인, 산약, 숙지황, 시호, 신곡(신국), 우황, 육계(모계), 작약(백작약), 저령, 진피, 천궁, 행인, 향부자, 황금, 황기, 황련, 황백, 후박.	96.1.1부터 한약판매업소(도매상, 한약방, 약국)는 규격품만 사용, 저장함.

간주하며 수급조절품목지정 요건인 “국내에서 상당량이 재배 또는 채취되거나 국내 상당량이 소요량을 초과하는 것으로서 품질이 우수한 것” 지정기준에 의해 지정(초안)한 한약재 27 품목 중 갈근, 길명자, 구기염, 목과, 목통, 산약, 산초, 소자, 애엽, 은행잎, 의이인, 진피 등 12품목은 제외하고 새로 두충, 목단피, 백수오, 백출, 시호, 오미자, 적자약, 지황(생,

건), 창출, 천마, 치자, 폐모, 하수오, 황금 등 지정품목의 과반수를 교체하면서 한약재 수입 총액의 35%에 달하는 녹용을 지정하지 않은 것은 같은 약재간 지정요건 적용의 형평성과 선정과 정의, 공정성이 결여된 수급정책 때문에 판로가 봉쇄된 국산녹용을 생산을 더이상 지속할 수 없어 국내 양륙은 파국이 우려되기 때문임.

플사료는 자연 그대로의 건초가 좋습니다.

365일 알팔파베일(건초)큐브

그동안 건초를 비싸게 구입하셨습니까?
 이제는 질 좋은 우수한 건초를 저렴한 값에 365일 수량에 관계 없이 구입할 수 있습니다.

365일 휴일없는
 자연 사료 **서울상공(주)**
 주소 :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831-1
 TEL : (02) 535-7786(대)
 FAX : (02) 593-1261